

황진이 무덤 지나며 '청초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엇난다..'를 읊은 조선시대 문장가

임제 선생, 나주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부활한다



백호 임제 선생 영정.



말을 탄 임제 선생의 모습을 그린 그림.



조선의 위대한 문장가인 백호 임제 선생을 기리고, 관광·문화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백호박물관 전경.

<나주시 제공>

호남이 배출한 조선 중기의 문장가 백호(白湖) 임제(林梯·1549~1587년) 선생을 기리고, 나주의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조선 중기 시인 겸 문신인 임제는 황진이 무덤을 지나며 읊은 시조 '청초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엇난다...'로도 유명하다.

본관은 나주이며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지내다가 당파싸움에 환멸을 느껴 명산을 찾아다니며 여생을 보냈다.

◇되살아나는 임제=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최근 임제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백호 박물관을 개관하고 전문가를 채용해 전시물 재정비와 유물등록 등을 통해 전남도의 실사를 거쳐 지난 7월 22일 제2층 박물관(전남-제30호)으로 자리매김했다. 등록박물관 요건은 학예연구사 확보, 전시실 규모 등을 확보할 경우 주어진다.

임제 문학관은 지난해 4월 개관 후에서 직영하다가, 올 초 나주 천연염색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후 학예연구사 채용과 전시물 정비, 유물등록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 등록을 신청했다.

또 나주시의회 상임위 의원들도 지난 달 의회 폐회기간에 백호박물관 활성화

백호문화관, 전문박물관 등록 전시실엔 유물·유작 다양 삶·문학세계 조명하고 한시교실·문학콘서트 운영 시민 문화 향유공간으로

를 위해 현장방문 활동을 벌였다.

의원들은 임제 선생의 삶과 문학작품을 전시해 놓은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을 둘러본 후 백호 문학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백호 박물관은 임제 선생의 유물을 수집하고 문학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 향유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임제 선생의 삶과 문학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한시(漢詩)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풍운아인 임제 선생을 만날 수 있는 '밝은 달 신고간 배'란 문학 콘서트를 연다.

◇백호문화관 문화 명소화=백호 문학관은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대지 3875㎡에 연면적 387㎡의 지상 3층 규모로 수장고와 집필실, 전시실 등을 갖

췌다.

임제 선생은 어린 시절을 외가인 곡성군 옥과에서 보냈다. 백호라는 호는 외가인 옥과 섬진강 무진동에서, 또다른 호인 풍강(楓江)은 풍천 나무터가 있는 고향인 회진 풍호마을 이름에서 따 지었다고 한다. 그는 39세 짧은 나이로 생을 마쳤으나, 1000여 수의 빼어난 시와 많은 산문, 소설을 남겼다.

백호 문학관에 들어서면 '무어별(無語別)'이 새겨진 시비가 정원에 세워져 있다. 문학관 2층 상설 전시실에는 6척 체구의 백호 영정이 걸려 있다. 전시실에는 백호의 생애와 그의 손때가 묻은 글과 문집 등 유작과 유물이 전시돼 있다.

상설 전시관에는 백호 선생의 생애와 문집, 젊은 시절 나주시 다시면 소재 북암사에서 공부할 당시 쓴 석림정사 현판 친필글씨, 선생의 문집인 '검재유고' 복제본 등이 전시돼 있다.

또 36세 때 평안도 도사직 임기를 마치고 대동강 부벽루에서 지은 '부벽루상영록'과 한문소설 '화사', '원생공유록', '수성지' 등이 실려있는 '백호고잡초', 백호의 유품집인 '백호필적' 등이 있다. 백호 문학관에서는 그의 유물인 거문고와 옥통소, 보검도 볼 수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백호박물관에는 임제 선생의 철학과 학문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 자료와 문헌을 만나볼 수 있다.



부강한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제 선생의 유언장.

나주시 투자유치 '올인'

민선 6기 기업 300개·일자리 6000개 창출

나주시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투자유치에 '올인'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나주시는 10일 "민선 6기 4년 동안 인구 15만 명 달성, 기업 300개와 9000억원 유치를 통한 일자리 6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 충분한 산업유지 확보,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함께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광, 환경, 농업 등 담당 부서별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유치목표를 부여하고, 투자유치 관련 교육도 한다.

'투자유치 정보센터'도 운영, 시민들에게 투자유치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진 등 16개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의 안정적 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민선 6기 시정의 양대 축으로 삼아 임기 중 인구 15만명 회복을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전통시장서 도로명 주소 활성화 홍보

나주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나주시 종합민원과(과장 신영희) 직원들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나주 목사교를 시장과 영산포 풍물시장, 나주시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장터를 방문,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도로명주소 사용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집중 설명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20m 구간마다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여 도로명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정보화시대 위치정보 체계 도입과 국가표준형식 채택에 맞춰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된다면 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